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9	09. 05	09. 12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예배 전 찬양 -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2. 감사 - 성도님들들의 기도로 김미자 권사님의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3. 예배 중에는 마스크 벗기가 가능합니다(이동 금지, 접종 완료 후 2주 지나야 함)
4. 소리 내어 찬송이나 통성기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

교우동정

입원	김미자 권사
고국 방문	이효실 성도, 김민혜 자매 김문희 성도 가정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419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한마음기도
- 성경봉독 Predigttext 삿 4 : 1- 3(구p365) 노지민 성도
(Richter 4:1-3)
- 설 교 Predigt 사사들을 통한 교훈.....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421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상호 목사

† 다음 주일 성경 봉독 : 강희수 성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제가 열두 살일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우리 형제들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학교를 다니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전쟁고아로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던 같은 학년 친구들은 아니꼽다는 듯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와서 우리 것을 축내?’

그때 깨달은 사실은 누구에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적 욕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고아원에 맘 편히 있을 수도, 그렇다고 고아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제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니다. 날 위협하는 친구들에게도 ‘좀 잘 봐줘!’라며 살갑게 대하자 결국 그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 속에는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평안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처지를 비관하거나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제도 작은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예배실을 찾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외롭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느8:10) 그분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 故 주대준 장로

* 한 시간에도 수백 번씩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가면서 믿음은 예리하게 날이 세워진다. - Emily Dicknson(1880년 12~1886년 5월) -